재외동포청 **보도자료**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. 8. 21.(금) 15시

“한국에서 살아보니...”동포 청년 100명이 직접 정책 제안

- 재외동포청, 안산시, 8월 21일「글로벌 디아스포라 청년 포럼」개최
- 고려인·중국·폴란드 동포 등 동포 청년 100여명 참여...교육·진로·사회통합 정책 논의

□ 국내에서 생활하는 재외동포 청년들이 자신들의 정착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과 진로, 취업 및 사회통합 등에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했다.

□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안산시와 함께 8월 21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「글로벌 디아스포라 청년 포럼」을 개최했다.

○ 이번 포럼에는 고려인·중국·일본·폴란드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동포 청년 100여 명이 참여했다. 청년들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며 겪은 경험과 고민을 나누고,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함께 논의했다.

□ 포럼은 ‘다양성이 모여, 함께하는 미래’를 슬로건으로 △글로벌 코리안 청년의 정착과 성장 △교육과 진로 △취업과 창업 △사회통합과 지역 참여 △재외동포 청년 지원정책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.

○ 1부에서는 「2026년 상호문화도시 안산 포럼」을 주제로 전후석 감독의 기조 강연에 이어 참석한 청년들이 ‘나는 왜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꿈꾸는가?’를 주제로 발표했다.

○ 발표자들은 한국에서 성장하거나 생활하면서 겪은 정체성 문제와 학교생활, 진로 선택, 취업 준비, 지역사회 적응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. 한 발표자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하여 정착 중인 과정을 소개하며 등록금 감면·장학금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. 졸업 후 취업·인턴십 연계 등 지원 프로그램이

마련되면 보다 많은 동포 청년들이 한국에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.

○ 2부에서 참가자들은 △교육·진로 △취업·창업 △사회통합· 지역 참여 △동포 청년 지원 등 4개 분야로 나눠 원탁토론을 진행했다.

○ 청년들은 외국인전형이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비싸고,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의 대상이 안되는 점, 취업 관련 정보 부족 및 각종 지원 프로그램에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등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체감한 제도적 불편과 필요한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.

○ 각 조는 토론 결과를 정리해 발표하고, 이를 재외동포청과 안산시에 전달했다.

□ 한 청년 대표는 “동포 청년들이 대학생활을 하며 청년적금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데 현재는 상품이 제한적이고 금리도 매우 낮은 편”이라며, “작은 노력들이 언제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만 모국이 이를 위한 청년들의 디딤돌이 되어 주길 희망한다”라고 말했다.

□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“좋은 정책을 만들려면 정책의 대상인 동포들이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부터 제대로 들어야 한다”라며 오늘 나온 제안 하나하나를 살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”라며,

○ 이어 “동포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배우고 일하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출신이나 배경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”라며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세계를 무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“ 밝혔다.

□ 재외동포청은 이날 제안받은 내용을 검토해 국내 동포 정착 지원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. 이와 함께 동포 청년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.

붙임 : 글로벌 디아스포라 청년 포럼 행사 사진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귀환동포정착지원과	책임자	과 장	강모세 (032-585-3280)
		담당자	주무관	김성환 (032-585-328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대체불가 대한민국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